

# 2000년도 제정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와 21세기 한자·한문 교육의 방향

박삼서·김왕규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 I.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배경 및 목적

광복 이후의 한자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1951년 9월에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는 상용한자 1,000자를 제정하였다. 1957년 11월, 문교부는 한자빈도조사를 기초로 하여 선정한 300자를 추가하여 상용한자 1,300자(임시 제한한자 1,300자 일람)를 제정하였다. 현행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는 문교부에서 한문과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972년 8월 16일 확정 공포한 것이다. 이는 1957년에 선정한 상용한자 1,300자를 기본으로 하여 당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사용된 한자와 예일대학과 일본의 상용 한자 등에서 추출한 500자를 합하여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선정한 것이다.

1972년 2월 28일 교육법 시행령 109조에 의거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가 제정되고 2학기부터 한문과가 독립 교과로 인정되는 한편 중등학교에서 한문 교육이 독립 교과의 하나로서 시작되었고, 대학에도 한문교육과와 한문학과가 개설되었다. 또한 한문과 교육과정이 새롭게 마련되었고, 한문 교과서가 개발되었으며, 한문 전공 교사를 대학에서 배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는 한문과의 독립과 더불어 한자·한문 교육의 정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는 한문 교육 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큰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1972년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가 제정된 뒤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용 한자로 새롭게 조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식·정보 습득의 욕구 증대로 교육용 기초 한자를 중심으로 한 한자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능동적으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교육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1999년 2월 9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실시한 ‘한자 사용 빈도’ 조사 연구 결과에 근거, ‘한자 병용 방안’ 추진 차원에서 현행 교육용 기초 한자 범위를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 순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이어 6월 24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조정안을 완성하고 국어 심의회 한자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다음 교육부(현 교육인적자원부)에 조정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언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계화에 공헌하고 교육적 전망을 확립하여 새로운 교육 체계를 정립하며 사회 교육과의 유기적 연결로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곧 교육부는 21세기 지식·정보

화 사회에 직합하도록 1972년도에 제정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재조정하여 한자·한문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교육직 패러다임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II.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경위 및 방법

### 1. 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문·협의회 개최

교육부는 1999년 7월 13일 현행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 대한 조정 여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한문 교육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문·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문·협의회에 참석한 자문 의원들<sup>1)</sup>은 문화관광부 조정안의 조정 경위, 조정 방법, 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 하였다. 또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과 관련된 향후의 추진 대책을 강구하였다. 자문 위원들은 먼저 문화관광부의 조정 경위와 한자 조정 방법<sup>2)</sup>을 살펴본 뒤, 문화관광부에서 제출한 2개의 조정안을 검토하였다.

- 1)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관련 자문·협의회 자문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우상(한서대), 이동환(고려대), 김용길(성신여대), 신용호(공주대), 김상홍(단국대), 박영호(경북대), 김동진(동국대), 진제교(성균관대), 정준섭(문성중), 허천행(봉은중), 이강렬(연남고), 최창규(시초고)
- 2) 참고로 문화관광부의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학자료 약 950만 자를 전산 입력한 후 빈도순으로 15,000자의 한자를 기초로 하였다. 국학 자료는 四書類, 敎材類, 中國文學類, 中國史書類, 韓國史書類 등이다. 둘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재조정을 위해 이로부터 4,000자의 한자를 텍스트별로 정리하여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한문 교육을 위하여 빈도 중심으로 심의하여 선정하였다. 넷째, 고유명사의 표기에서 인명, 지명으로 쓰인 한자의 분포는 제외하였다. 넷째, 사용 빈도는 낮되 전통 문화의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자는 신의를 거쳐서 선정하였다.

### ■ 문화관광부 조정안

- 제1안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국어 생활에 널리 쓰이는 200자를 참고안으로 제시)
- 제2안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와 국어 생활에 널리 쓰이는 한자 200자를 포함한 2,000자

문화관광부 조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시대적 추세와 변화를 감안하여 볼 때, 조정안을 제정한 자체는 매우 의의 있는 일이며 한문 전적과 현행 일상 자료를 토대로 한자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선정의 기반으로 삼은 점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빈도수 조사 자료의 효용 한계를 우려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조정안은 결국 교육용 한자 수를 실질적으로 늘리게 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한문 교육용 한자와 국어 생활용 한자를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문·협의회 결과, 자문위원들은 문화관광부의 조정안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우선 현행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장차 예산을 확보하여 권위 있는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 연구하게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한 뒤, 검토·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조정 방법 및 절차 과정 모색

1999년 7월 22일 교육부는 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문·협의회 자문 위원들의 회의 내용과 종합 검토 의견을 근간으로 하여,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방법과 절차의 기본 방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우선 문화관광부 조정안의 조정 범위와 조정 방법 그리고 조정 내용을 다시 변질하게 검토한 뒤, 문화관광부 조정안과 현행 교육용 한자를 비교, 검토하였다. 문화관광부 조정안에 대해서 빈도수 조사 자료의 효용 한계<sup>3)</sup>와 교육용 한자 수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는 점<sup>4)</sup>을 지적하고, 교육부 자체의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 대책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에 대한 교육부 기본 대책안

<1 안> : 연구 과제를 권위 있는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검토·조정위원회(가칭)에서 최종 결정한다.

(장점) ○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거국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단점) ○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됨.

<2 안> : '교육용 기초 한자 검토·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부 안을 토대로 검토·조정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

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한다.

(장점) ○ 교육부 주관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음. ○ 검토·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점) ○ 별도 연구 과정이 없이 기존 연구 결과만을 가지고 검토·조정해야 함. ○ 문화관광부 안을 교육부 자체 연구 없이 수용하게 되어, 교육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제기될 수 있음.

<3 안> : 현행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그대로 유지한다.

(장점) ○ 일관된 한자·한문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 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단점) ○ 1972년도에 제정된 이후 시대적 추세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여지가 내재한다.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위의 대책안 가운데 <1 안>을 채택하여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에 관한 연구 과제를 권위 있는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검토·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방법 및 절차 과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였다.

### 3. 한국한문교육학회 기초 연구

교육부는 1999년 8월 11일, 조정 방법 및 절차 과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한국한문교육학회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연구 과제를 위탁하였다. 한국한문교육학회는 8월 22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연구위원회<sup>5)</sup>를 구성하고, 이어 8월 30일에 교육부와

3) 빈도수 조사 자료의 효용 한계 및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논의되었다. 연구에서 선택한 문헌의 성격 및 종류에 따라 통계의 경향이 달라진다는 점, 한문 교육용 한자는 문장의 성립과 생성 등의 기본 요소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행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서 제외된 한자 중에는 문화관광부 조정 신위 한자보다 오히려 눈에 익숙한 한자가 많다는 점 등이 거론되었다.

4)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현행 1,800자도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한자 수가 많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 중학교의 경우 1시간에 15자 정도를 학습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과중한 한자 학습량이 한자 학습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5) 연구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상홍(단국대), 정우상(한신대), 이동환(고려대), 신용호(공주대), 신경호(고려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한문교육학회는 이후 여본조사, 세미나, 심의진 회의를 거쳐 1999년 12월 30일에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 1권과 ‘한국·북한·일본·중국·대만의 교육용한자·상용한자 분석자료’ 부록 1권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김상홍 외, 1999).

한국한문교육학회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종과 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와 인근 한자문화권인 북한·일본·중국·대만 등 5개국 8개 기관에서 제정한 교육용한자·상용한자를 대비 연구하였다. 그리고 2,000자를 1안으로, 1,800자를 2안으로 하되, 각 안별로 학교급별 자종 및 자수를 위계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분배하였다. 교육용 기초 한자에 대한 한국한문교육학회의 조정안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용 기초 한자에 대한 한국한문교육학회 조정안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
제1안 2,000 자	초· 중· 고	600자	800자	600자	2,000자
	중· 고	0	1,000자	1,000자	2,000자
제2안 1,800 자	초· 중· 고	500자	700자	600자	1,800자
	중· 고	0	900자	900자	1,800자

동학회는 보고서 발명에 학회가 제출한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안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는 초·중·고 학교 급별로 반드시 교육시킬 것, ② 한문 교육은 반드시 한문을 전공한 교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것, ③ 교육부는 기초 한자를 조정한 뒤 이를 학교 급별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④ 연구 과제의 연구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 등을 제언하였다.

#### 4.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교육부는 2000년 6월 14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에 관련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자료집<sup>6)</sup>에 나타난 발표 주제와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을 위한 공청회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1999년 교육부 정책 연구 과제의 책임자인 김상홍 교수(단국대, 한국한문교육학회장)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의 기본 방향’을 발표하였다. 기존 한자 조정의 기본 전제와 한국·북한·일본의 기존 한자·상용 한자 변환사를 개괄하고, 자종 분석과 세미나 및 여본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기존 한자 조정의 기본 원칙과 조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문광부안과 연구안을 대비, 분석하였다.

2부에서는 먼저 박영호 교수(경북대)가 ‘교육용 한자 수의 검토’를 발표하였고, 다음으로 진재교 교수(성균관대)가 ‘교육용 한자의 학교급별 구분’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영호 교수는 한국한문교육학회에서 제시한 연구안의 기대 효과와 의의를 밝히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영호 교수의 주제에 대해 김지영(경향신문 논설위원), 이형재(동마중 교장), 이준석(국립국어연구원 연구사), 송재욱(여의도고 교사)이 토론을 하였다. 진재교 교수는 1,800자 재조정의 접근 시각에 대한 문제, 학교급별로 나눈 기준과 타당성 문제, 학교급별로 나눈 한자 수의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고, 한자 학습량, 사교육에서 한문 교육의 확산, 학교 현장에 대한 문제, 한문에 대한 시각 조정에 관한

6) 교육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 자료집, 2000.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진재교(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박봉배(전 서울교대교수, 한글학회), 남기탁(강원대 교수), 이춘성(성북고 교사), 고성옥(서울교대 부설 중등학교 교사)이 도론을 하였다.

3부에서는 발제 발표와 제 1, 2 주제에 대한 종합 도론이 있었다. 학회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와 관련된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현행 교육 과정이나 학습 시간에 비해 교육용 한자 수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교육용 기초 한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 5. 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

교육부는 2000년 7월 24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년 7월 29일 조정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부위원장, 실무위원, 간사를 선임하였다. 그리고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조정 목적을 정립하고, 조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였다.

조정위원회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목적을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하도록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조정하여 한자·한문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확립”하는데 두었다. 곧 언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계화에 공헌

하고, 교육적 전망을 확립하여 새로운 교육 체계를 도모하며 사회 교육과의 유기적 연결로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는 “한문 교육과 국어 생활을 동시에 고려하고, 동북아 한자 문화권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할 수 있는 한자를 선정”하는 것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첫째, 동북아 한자 문화권(한국·북한·일본·중국·대만)에서 널리 쓰이는 한자, 둘째, 한문 고전에 자주 쓰인 한자, 셋째, 국어 생활에 자주 쓰이는 한자 등을 세부 사항으로 정하였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현행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유지를 기본으로 하여 조정을 최소화하였다. 이는 한자·한문 교육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고려하고, 조정에 따른 교육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지식·정보 사회에 대응하는 한자·한문 교육을 고려하였다. 이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용 한자로 조정하고, 동북아 한자 문화권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한문 교육과 국어 생활에 조화를 이루는 한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 생활에 많이 쓰이는 실용 한자를 선정하고자 하였고, 사용 빈도가 높고, 동북아 한자 문화권에서 널리 통용되는 한자를 선정하였다.

위에서 진술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조정 목적, 조정의 기본 원칙 그리고 기본 방향을 설정한 다음 조정위원들은 2000년 12월 18일까지 총 11차례의 조정위원회를 열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을 수행하였다.<sup>9)</sup>

7) 조정위원회의 구성 원칙 및 조정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한자, 한문 교육 관련 전문가를 우선으로 위촉하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학의 한문 교육 관련 학과 교수, 어문 교육 관련 기관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소의 연구원, 중학교·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육부 어문 정책 담당 장학관으로 구성하였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 김상홍(단국대, 한국한문교육학회장), 진재교(성균관대), 이춘식(국립국어연구원, 문화관광부 조정 실무자), 김왕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연구원), 이형재(동마중 교장), 김석제(수성고), 박삼서(교육부, 어문 담당 장학관)가 조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8) 김상홍(위원장), 이형재(부위원장), 김왕규·김석제(실무 위원), 박삼서(간사)

9) 11차례의 조정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그 길과는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교육인적자원부, 2001) 참고.

## 6. 조정위원회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결과 보고

교육부는 2000년 11월 1일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계획에 따라 한국한문교육학회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 조정 관련 공청회와 조정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의 주요 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의 주요 방법은 첫째, 문화관광부 안과 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안 공통으로 현행 1,800자와 중복되는 1,556자를 선정, 둘째, 문화관광부 안과 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안에 공통으로 추가되는 44자를 선정, 셋째, 문화관광부 안의 국어 생활용 200자와 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안과 공통되는 193자 선정, 넷째, 공통 탈락자 중 7자를 선정 하였다(1,556자 + 44자 - 193자 + 7자 = 1,800자). 그리고 중학교용 900자와 고등학교용 900자를 분리하였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주요 조정

내용은 먼저 현행 1,800자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중학교용 900자와 고등학교용 900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조능학교 한자 교육은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도록 단위 학교에 자율·재량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른 조정의 세부 내용으로 조정 한자 수는 44자를 제외하고 추가하였는데 현행 중학교용에서 4자(硯, 貳, 壹, 欄)가 제외되었고, 고등학교용에서 40자가 제외되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구분 내용은 현행 고등학교용 한자 ‘李, 朴, 革, 古’ 4자를 중학교용으로 조정하였고, 교체 한자 44자를 고등학교용으로 하였다.

한편 11차에 걸친 조정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의 결과를 2000년 12월 30일 전까지 문서로 작성하여 공표하기로 하였다. 교육상 필요한 사항을 공표 문서에 포함시키고 편수 자료로 발간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확정된 안을 각계에 배포함으로써 공표 전 충분한 검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2001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구체적으로 7차 교

<표 1> 문화관광부 안·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안·조정위원회 조정안 추가자 자종 대비

문 화 관 광 부 안 추가(244자)	한국한문교육학회연구 안 추가(79자)	조정안 추가(44)
嫁嘉駕揀諫蝦蛄勘堪疆渠山乞尙劬隔牽繫穆灌曠 狂魁乖驕歐躬眷闕軌窺糾際衿汲矜妓饑訥匿溺戴 觀傘禱屠躑頓遁屯騰廬黎罔斂獵齡虜賂僚陋戮淩 昧耗侮冒茅摸撫毋誣來綉剝伴頌旁陪吊關瓶堡僕 覆俯焚匪憑徙紗放剎嗣折抒瑞誓碩膳繕緝紹贖遜 宋搜酬垂袖羞繡營夙淳舜絃訊按押躍禦掩歟闕朕 盈詣隸裔沃擁擾妖堯佑寓熊冤踰股凝倚擬穀弛爾 滋諮杖匠仗贓齋宰沮邸嫡箭殿餞銓餽竊鼎庭措遭 誅奏鑄珠稷座津秦震叱澄鑿讚撰饌站斬陟穿轍賤 牒輒捷帖遞速涕滯楚葩葩墜黠聚馳卓憚誕耽蕩 顏把坡辦牌佩輓偏貶袍褒爕桌迥乏翰函偕効嫌衡 狐宦闊惶后勳諱恤兇欣訖洽詰(244자)	乞隔牽繫狂購掘罔軌糾瞻 塗悼棟屯騰獵隸僚魔縹綯 侮冒帽作紡罔覆縫誓逝織 攝垂搜殖押躍閱預羅羅融 擬宰殿竊偵鈞奏珠週鑄駐 旨脂診震迨餐撤滯逮遞焦 秒卓託誕把偏艦嫌衡型酷 靴幻(79자)	乞隔牽繫狂 軌糾塗屯騰 獵隸僚侮冒 伴覆暫逝攝 垂搜押躍罔 擁擬宰殿竊 奏珠鑄震滯 逮遞秒卓誕 把偏嫌衡(44 자)

&lt;표 2&gt; 문화관광부 안·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안·조정위원회 조정안 제외자 자종 대비

문 화 관 광 부 안 제외(244자)	한국한문교육학회연구 안 제외(79자)	조정안 제외(44)
脚刊肝渴銅慨愍后硬系械稿戈瓜誇慣鑛塊較矯 鷗球菊傘岬罔茵劇技企諾耐努濃腦櫛罔潭甯糖 挑跳稻脉凍桐鈍洛絡卵欄欄藍朗涼戀練裂劣廉 零嶺梨漠蠻忙媒脈盲眠募矛沐苗密妨傲栢醜汎辯 譜復蜂腐膚拂弗批鼻頻拵查酸森狀償菩析線舌蔬 頰鎖狗盾后瞬拾升芽餓阿史狹涯厄洋樣疫研鉗軟 覘熱炎染沐映詠譽娛傲梧謠慾鄧胃偉潤武刃壹賃 姊姿雌薏張粧腸藏障臟戕貯滴摘箇蹟展店蝶訂爆 紉拙宙株洲準憎症蒸誌陣姪捉窓暢洽佞榮悵拮踐 尖替礎促觸銃催抽醜蟲臭趣層稚針浸妥濁琢炭態 庀透派販敗敗肺胞爆幅票楓巷港抗航核響弦絃協脅 螢慧呼穫擴丸灰割喉吸稀噫熙(244자)	姦惡卿戈鷗苟歟閏畿那奈 亙潭敦制洛藍祿梨蠻茫罔 冥沐腔憫蜜栢屏弗婢聘祀 溯粟孰升阿楊余汝興硯吾 梧愈閏淫貳夷壹茲雌恣 埒蹟鐘只滄悽妄琢殆兎頗 楓鶴奚弦絃亨兮弘鴻候喉 噫熙 (79자)	惡戈瓜鷗閏 濃潭桐洛爛 藍朗蠻矛沐 栢汎弗膚酸 森盾升阿硯 梧貳刃壹雌 蠶笛蹟洽悽 稚琢兎楓弦 灰喉噫熙(44 자)

육과정이 적용되는 중, 고등학교 한문과 교과용 도서 편찬 내용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 사회 교육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로 하였다. 셋째,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는 조정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 어문 교육 정책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 안·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안·조정위원회 조정안의 추가자와 제외자의 자종을 대비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7. 여론 수렴 및 조정

교육부는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시안을 11월 23일에 언론에 공표하였다. 동시에 15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조정안에 대한 현장 한문 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언론에 조정안을 공표한 결과, 일부 신문은 사실 보도에 그치고 있었지만, 몇몇 언론 기관 및 신문에서 예리한 논조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竊, 繫, 獵 등의 한자는 획수가 많고 쓰기가 쉽지 않다는 점, 遞는 우체국 외에는 용례가 없다

는 점, 그리고 체포의 逮와 노예의 隸는 이미 한글로 굳어진 용어라는 점에서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은행에서 자주 쓰이는 壹, 貳를 비롯해 이름에서 흔히 쓰이는 熙 등이 빠졌고, 달리 표시로 쓰이는 弗, 모순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矛와 盾, 숲, 부수로 쓰이는 戈, 瓜 등이 조정안에서 제외 됐음을 지적하였다. 진국시·도 교육청에서 보내온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제외자 및 추가자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외자 44는 추가로 지도할 수 있는 1학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 지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sup>10)</sup>하였으 며, 조정안의 기초 한자에 속하는 일부 한자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는 한자 에 대해서는 한문 자료 독해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안의 한자를 재검토하였다.<sup>11)</sup>

10) 「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교육부, 2000. 12)

11)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시·도 교육청의 자세한 검토 의견은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백서」(교육인적자원부, 2001), 539-587. 참조.

## 8.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확정 및 공표

교육부는 2000년 12월 30일,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기반한 동북아의 새로운 문화권 형성과 언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자·한문 교육에 내실을 위하여 1972년에 제정·공표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재조정하여 공표하고, 새로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는 2001학년부터 적용됨을 밝혔다. 공표문에는 전문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조정 과정,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조정 원칙,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배열 원칙,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지도상의 유의점을 병기하였고, 새로 제정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으로 구분하여 자모 순서 및 부수 순으로 부록에 제시하였다. 공표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공표문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기반한 동북아의 새로운 문화권 형성과 언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자·한문 교육에 내실을 기하며, 새로운 교육적 전망을 확립하기 위하여 1972년에 제정·공표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조정하여 2001학년부터 적용한다.

##### 1.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조정 과정

- 가. 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문·협의회 개최(1999. 7. 13.)
- 나. 조정 방법 및 절차 확정(1999. 7. 22.)
- 다. ‘한국한문교육학회’에서 기초 연구(1999. 8. 29~12. 30.)
- 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0. 6. 14.)
- 마. ‘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2000. 7. 24~11. 23.)
- 바. 이론 수렴 및 조정(2000. 11. 24~12. 18.)
- 사. 확정 및 공표(2000. 12. 30.)

##### 2.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원칙

- 가. 동북아 한자 문화권(한국·북한·일본·중국·대만)에서 널리 쓰이는 한자
- 나. 한문 고전에 자주 쓰인 한자.
- 다. 국어 생활에 자주 쓰이는 한자.

##### 3.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배열 원칙

- 가. 한자의 배열은 한글 맞춤법에 규정한 자모 순서 및 부수 순서에 따른다.
- 나. 음이 둘 이상의 한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음을 취한다.
- 다. 한자의 자형은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

##### 4.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지도상의 유의점

- 가.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에 관계없이 지도한다.
- 나. 학습 효과와 교과용 도서 편찬을 위하여 1화의 범위(1972년에 제정한 한자 중에서 제외된 44자 포함)에서 추가 지도할 수 있다.
- 다. 둘 이상의 음과 자형을 가진 한자는 모두 지도한다.

##### 5.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부록 참고)



### Ⅲ. 21C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한자·한문 교육의 방향과 과제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학습하고 이를 언어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한자·한문 교육은 교과교육학으로서의 한문 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면서 국어 교육과의 상호적인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오로지 한문 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일조가 되는 한문 교육의 역할을 자각하여야 한다. 곧 한문 교육은 독자성의 유지와 국어 및 언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한문 교육의 가치를 발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주위 여건과 연결시켜 강조하고, 제도적·강압적인 교육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의 자연스러운 요구와 필요에 의하여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자생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습득과 활용을 중심 축으로 하는 한문 교육의 위상은 자못 중차대하다. 현대는 사회가 다원화되어 공교육, 제도 교육만으로는 인간 교육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가 매우 어렵다. 학교 교육의 비미점을 사회 교육에서 보완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고조되고 있는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의 열기<sup>12)</sup>를 보더라도 한문 교육을 이제 더 이상 학교 교육 안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 교육 차원으로 그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문 교육도 사회 교육,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일상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 교육적 모델을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최근 사회 일각에서 일고있는 초등학교 한자 교육 고조 분위기는 한문 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용시생 가운데 초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과로 한자 교육을 도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자·한문 교육이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치적으로 연구하여 문화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구체적 상황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문화가 현재에도 그대로 문화 발전의 원동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전통 문화의 단순한 계승 차원이 아니라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문화 발전의 차원에서 한문 교육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 유구한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동양 3국 가운데 동양적 가치관의 원형을 보존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내세우며, 미시적 차원에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한문 교육을 언어, 문화 교육과 관련지어 거시적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동시에 연구해야 한다.

21세기 한자·한문 교육의 위상은 언어 교육, 곧 외국어 교육의 차원에서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대만과 일본은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 나라의 언어인 중국어와 일본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한자 습득은 매우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를 학습함으로써 중국어와 일본어를 익혀 다가올 21세기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는 한자 교육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한자·한문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자·한문 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 대한 학습과 언어 생활의 활용을 위하여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가는 문제다. 예전의 강독식, 주입식 수업은 한자 한문 학습에 대한 기피증을 더욱 심화, 촉진할 뿐이

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매시간 어떻게 안내하여 가르칠 것인가, 한자의 뜻과 음을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도입할 것인가, 배운 한자를 어떻게 언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학습자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이제는 한자·한문 교육에 직접 하고, 다 교과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곧 교수·학습의 과정이 드러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학습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하여 창조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이 개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자·한문 교육의 목표와 성격을 구현하기 위한 교과 내용을 설계하고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모형이 개발되었다면 다음으로 한문 교육을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육적 성과를 가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 곧 새로운 평가 도구의 개발과 수행이 필요하다. 사실 그 동안 한문 교육은 이러한 평가들 면밀한 계획과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면이 없지 않았다. 단순히 재인이나 회상을 요구하는 암기 위주의 확인 평가 방법이나 혼고주석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전고를 이해하고 있는가, 또 어려운 한문 문장을 해독할 수 있는가 하는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학습의 과정이나 수행을 중시하는 평가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바탕으로 한자, 한자어, 한문 학습을 통하여 얼마나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평가 관점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21세기 한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분야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문 교과서 문제이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 교과서의 경우 예전

에 비해 질과 양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발전이 보이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제재의 선정과 전개, 교육용 기초 한자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향 및 방법 등에서 21세기 정보·지식 사회에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과 체제를 갖추었느냐는 점에는 더욱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과서의 기능과 역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미래의 교육에서는 단일한 교과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수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 효율의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문 교육의 내용이 고전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해서 교육의 중핵 자료의 하나인 교과서의 체제마저도 변화를 꺼리면 한문 교육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지식·정보 사회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창조적인 사고력 신장을 꾀하는 탐구 학습 자료를 제시하며 학습 내용을 새로운 평가 방향과 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교과서,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연구, 개발하고 이를 통한 한자·한문 교육도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일반인을 위한 한자 교재의 개발·편찬에도 한문 교육 관련자들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신문에 자주 쓰이는 한자와 전통의 이해 및 예절에 필요한 한자 그리고 일상 생활에 자주 쓰이는 한자 등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한자, 한문이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 및 한자문화권의 방대한 인구와 경제력으로 보아 세계화와 개방화를 촉진하고 국익을 신장하는데 한자·한문의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에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한 한자, 한문 교육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연구,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학교 교육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교육

측면에서 적극 활용하여 기존 한자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최근의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포함하는 한자 능력 검정시험에 대한 열기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 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초·중학생과 일반인들도 자발적으로 한자를 학습하고 학습 결과를 점검하는 현상은 한자 교육이 평생 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 사회에서 사용할 기존 한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에 따른 시간 수를 고려하지 않고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자를 무한정 가르칠 수는 없고,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는 학교 교육이라는 제한점을 갖기 때문에 대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기존 한자 선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학습 문제와 관련하여 중, 고등학교 한문 교육의 위상 변화에 따른 적정 시간 수를 확보해야 한다. 21세기 정보·지식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한문과의 위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즉 6차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과목의 하나였던 한문 교과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교과 재량 활동에서 선택 과목의 하나로 배정되어 있고, 고등학교 한문 교과 또한 국민 공통 기본 교과가 아닌 '선택 교과'로 그 위상이 전환되었다. 한문과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학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 배당된 시수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익히고 이를 국어 생활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한문 교육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어 교육과 효율적인 언어 생활을 위해서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교육과정 상에서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는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학습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한문 교과 교육의 본질적 문제이자 과제이다. 특히 현재의 선택

교과에서 필수 과목으로 한문과의 위상이 조종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2000년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들은 한문 교육을 위한 기존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한자 교육과 한문 교육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재는 한문과 교육 과정 개정 작업 시에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초기 문자 지도 단계에서 한자 인지 과정 및 양상, 그 배경 요인, 한자와 한자어 학습 과정, 한문 독해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한문 교육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 자료를 한문 교육 학계는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당위의 역설만으로 한문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 한문 교육이 필요하다면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학습자가 가장 흥미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과학적인 자료 분석에 바탕한 논의의 전개가 요청된다. 문자 표기 방식에 대한 학문적 논란과는 별도로 과연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의 문자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몇 학년에서 몇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존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대표 훈과 음을 결정하는 작업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이다. 곧 한문 고전 독해와 전통 문화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쓰여 왔던 훈을 중시하는 것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언어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훈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sup>13)</sup>가 있어야 할 것이다.

13) 교육한자 대표 훈음에 관한 연구로 다음을 참고. 한국어문화·전통문화연구회(2000), 「교육한자 대표훈음 선정」.

[부록] 2000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제정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가나다 순)

<중학교용 900자>

家可歌加價街佳假角各脚間王看渴滅感敢甘甲  
江降強剛開改皆個客更去車舉巨居建乾件儉格大  
見堅決結潔景輕輕敬驚慶競京耕庚季界計溪癸鷄  
古故固固告考苦谷曲穀困坤骨工功空共公果課科  
過觀關官光廣交校教橋九口救究久舊求句球國君  
平郡弓權卷勸貴鬼均極近動根金今禁給及急記期  
其氣技其幾己起奇器既吉暖難南男內乃女年念怒  
農能多單短端月但達談答當當大對代待德刀到度  
道烏都圖徒盜獨讀毒同洞冬冬東動斗豆頭得等登  
燈羅落樂卵亂浪郎來冷良兩量涼旅力歷連練列烈  
令領例禮路老勞露綠論龍能流類柳留六陸倫律里  
理利林立馬莫萬滿晚末望亡忙忘每買賣妹麥面勉  
免眠名命明鳴母毛暮木日卯妙武務無茂茂舞墨門  
間聞文物勿末味美米尾民密朴反飯半發方放訪房  
防拜杯白百番伐凡犯法變別病兵內保步報福服復  
伏木本逢夫父富婦扶部否浮北分不佛朋比非鼻備  
悲飛貧水四士史師死思事往射謝社使舍巳寺私絲  
山產算散殺三上兩和傷尙賞霜想常喪色生西序吉  
暑夕石昔惜席先經善選鮮船仙宜雪說設性成城誠  
聖姓盛省星聲世洗細歲稅勢少少所消笑俗速績  
孫送松水手受授守收數首誰須雖愁樹壽修秀叔淑  
宿順順術戊崇習拾勝乘承市示足時詩視始施試氏  
食栖識式身神臣臣新中辛失室實心深甚十兒我亞  
惡安案顏眼暗嚴仰愛哀夜野也約藥弱若羊洋養陽  
讓揚魚語漁於憶億言嚴業除與如易逆亦然研煙熱  
悅炎葉永英迎榮藝五午悟誤烏玉屋溫瓦臥完曰正  
往外要欲浴用刃容宇右牛友雨于憂又尤遇雲運云  
雄元原遠園願慇圓員月位危爲偉威由油有遺西猶  
唯遊彘幼肉育恩銀乙音飲陰已泣應衣義議醫意依  
矣二耳移以已而異益人因引仁忍認寅印一日正入  
了字自者慈姊作昨長場將章壯材財在可才裁戰爭  
貯低著的赤適敵而全前展電傳典戰錢節絕店接正  
政定情庭精了頂停井貞靜淨弟題除帝製第祭諸早  
造烏調朝助祖兆足族存尊種從宗終左罪主注作去  
酒出宋走竹中衆重即增曾證正知地指志支至紙枝  
持之直眞進辰盡質集執次借且着察參唱呂窓採菜

袁則處妻尺千天川淺泉鐵青清聽請體初草招村寸  
最秋迫推祝丑春出充忠蟲取就吹治致齒則親七針  
快打他脫探太泰宅上通統退投特波破剝八敗只篇  
便片平評閑布抱表品風豐皮彼必筆下夏賀河學寒  
韓漠恨限合恒海解害亥行幸香鄉向虛許現賢血協  
兄形刑患好號湖乎虎戶呼或混婚紅火化化和話華  
貨畫歡忠活黃皇回會孝效後訓休凶胸興喜希

<고등학교용 900자>

暇架却閑覺刻刊刊肝肝懸幹監鑑譜康綱綱介慨慨  
蓋距拒據健傑乞檢劍隔擊激牽糾肩選缺策謙徑便  
窺鏡傾境頃警啓契柱繫係階系繼戒械姑枯稿鼓孤  
庫顧哭孔恭貢供恐攻寡瓜諺郭冠寬貫管慣館狂鏹  
掛塊壞怪愧巧矯郊較丘俱懼狗購龜驅構具區拘菊  
局群屈掘窮宮券圈夸軌歸規糾叫茵克劇斤僅謹琴  
禽錦級肯忌棄祈豈機騎紀創旗欺企寄緊諾娘耐耐  
寧努奴濃腦惱泥茶團壇斷段檀膽淡擔奮踏店糖黨  
貸臺隊帶塗悼桃稍挑途陶逃倒導挑渡篤督豚突棟  
凍銅屯鈍騰絡欄欄濫濫覽鄺朗掠掠梁樞諒慮勵勵  
歷鍊煉戀聯連劣裂康獵嶺零靈隸爐錄鹿弄賴甯了  
僚屢樓淚漏累輪栗率陸陵吏履士吏離隣臨磨魔靡  
幕漠膜慢慢妄網媒梅埋脈孟旨盟猛綿滅銘侮冒募  
帽某矛謀貌慕模牧沒夢蒙慕南市質霧默微眉迷敏  
泊博拍薄迫伴叛班返盤般髮拔俄紡芳邦妨傍傍輩  
倍排配背伯煩醺纂罰罰汎範瑋碧辨辯邊竝補寶譜  
普卜覆複腹縫蜂鳳封峯符簿膚賦赴附付腐腐副負  
紛奮墳奔粉憤拂崩費卑妃批肥碑祕資頻似捨沙  
蛇詐訶賜寫辭邪查斜刁削酸森憤管床桑裳詳象  
狀祥雙寒索庶徐恕署署逝緒鉞析釋禪旋舌纖涉攝  
昭燒疎蔬蘇訴騷召掃束扇損訟誦頌刷鎖衰囚垂搜  
睡輸遂隨帥獸殊雷甯熟循旬殉盾瞬屑巡述濕襲僧  
昇侍欠息殞節仲愼晨密尋牙芽雅餓岳雁片獨押壓  
央殃涯厄額耶躍樣壤御抑焉了域役驛疫譚燕燕沿  
燃演鋸延軟緣園染醺泳泳映營影象預譽銳鳴娛娛  
汚獄翁擁綬綬嚙嚙遙遙搖搖悠悠辱庸伯愚郵羽優優援  
院源越緯竹謂違囹憊僞衛委儒幽惟誘悠裕乳雜潤  
融隱吟凝儀疑宜龔刀媚逸任賃刺姿紫資醇酌殘潛  
暫難張粧腸臟莊裝莊藏史掌葬獎帳宰載災裁抵底  
寂摘滴笛績跡賊藉藉殿專轉竊折切點漸占蝶但廷  
訂程亨征整際堤濟制齊提弔照和燥釣組條操潮卒

拙縱佐坐座周舟州柱奏株洲珠週鑄駐準俊遵仲憎  
症蒸贈遲旨智脂誌池職織珍診鎮震振陳陣姪疾秩  
微徽差此遮捉錯贊贊餐慙慘創暢蒼倉債彩策斥戚  
拓薦賤遷踐哲撤徹尖添聽晴苔滯逮遞抄焦秒肖礎  
超促觸燭總聰銃催抽醜遂縮寄箸峇衡臭趣醉側測  
層恥伯稚置漆沈侵寢枕浸稱墮妥卓托濁潔託歎彈  
炭誕奪貪塔湯怠憊澤擇討吐痛闕透把播罷派販販  
板編偏偏幣廢弊肺蔽胞包油飽捕幅暴爆標票漂被  
避疲匹畢何荷旱汗閑割含咸陷艦巷港航抗項該核  
響亨憲軒獻驗險革顯懸玄縣穴嫌脅型螢衡慧毫互  
浩胡豪護惑酷昏魂忽洪禾靴禍擴確穫幻還環丸換  
荒況悔懷灰獲劃橫曉候厚毀輝揮携黑吸稀戲

## 참 고 문 헌

- 정우상(1994). 한문과 교육정책과 한문교육  
용 기초한자의 선정. 『한자한문교육』, 창간  
호, 65-80.
- 박삼서(1999).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 『신한문  
과교육론』 (101-120). 전통문화연구회.
- 김상홍·정우상·이동환·신용호·심성호(1999).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에  
관한 보고서」. 한국한문교육학회.
- 김상홍·정우상·이동환·신용호·심성호(1999).  
「한국·북한·일본·중국·대만의 교육용  
한자·상용한자 분석자료」. 한국한문교육학  
회.
- 교육부(2000). 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  
습니다(홍보자료).
- 교육부(2000).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을 위한 공청회(공청회 자료집).
- 한국어문화·전통문화연구회(2000). 「교육한자  
대표훈음 선정」.
- 교육인적자원부(2001).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
- 김상홍(2001). 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조정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고찰. 『한문교육연  
구』, 16, 1-85.

## ABSTRACT

# **‘Basic 1,800 Chinese characters for Classical Chinese education’ enacted in 2000 and the direction for Chinese characters · Classical Chinese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Sam-Seo Park · Wang-Kyu Kim**

(MOE · KICE)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revision process and the details of the revision of the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hinese characters · Classical Chinese education’ enacted in 2000.

Although the basic Chinese characters enacted in 1972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Chinese characters · Classical Chinese education since its enactment, there was a strong need for an updated version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Therefore, the Ministry of Education replaced 44 Chinese characters among the original 1,800 characters with new ones.

The direction and the task of the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That is, we need to consider the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in terms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ts dimension of lifelong or social education, culture education,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addition, we need to discuss the problem of the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models, assessment tools, textbook revision.

In conclusion, we need to emphasize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for a fluent speech life and the promotion of our traditional culture.

**Key Words** : Basic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 Classical Chinese education